

# 『四庫全書總目提要』와 『四庫全書簡明日錄』의 목록기술요소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Elements of Bibliographic Description between  
*Sikuquanshuzongmutiyao* and *SikuquanshuJianmingmulu*

리 상 용 (Lee, Sang-Yong)\*

## ◁ 목 차 ▷

- |             |           |
|-------------|-----------|
| 1. 서론       | 2.4 저자    |
| 2. 목록기술요소비교 | 2.5 저작역할어 |
| 2.1 표제      | 2.6 저작년   |
| 2.2 권수      | 3. 결론     |
| 2.3 판본      |           |

## <초 록>

본 논문은 청조 건륭연간에 기운 등이 편찬한 사분법 해제목록인 『사고전서총목제요』와 『사고전서간명목록』의 목록기술요소를 비교 연구한 것이다. 기술요소는 표제, 권수, 판본, 저자, 저작역할어, 저작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사고전서간명목록』의 목록기술은 『사고전서총목제요』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지만, 『총목제요』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 편찬 목적에 맞게 『총목』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목록기술에 오차나 오류가 나오기 기술적 측면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간명목록』은 비교적 목록기술상에 통일성을 지녔으며, 『총목』의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교감하고 보강하여, 『사고전서』와 그의 『총목』에 접근하는 가교 역할을 해 주고,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목록으로 재편하였다는 점에서 중국목록학사에서 가치가 높은 목록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要語: 기운, 목록기술요소, 사고전서총목제요, 사고전서간명목록, 청

##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bibliographical elements between the two annotated catalogs, *Sikuquanshuzongmutiyao* and *Sikuquanshujianmingmulu* which was published by Ji-yun, Qianlong reign, the Qing Dynasty.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s were examined and compared with respect to title, volume number, print edition, author, word of authorship function, published date. Although the bibliographic descriptions of the *Sikuquanshujianmingmulu* were made based on *Sikuquanshuzongmutiyao*, the *Sikuquanshujianmingmulu* focused more on concise and clear descriptions than *Sikuquanshuzongmutiyao* according to the purpose of its compilation, rather than exactly following the latter. However, a few limitations existed in *Sikuquanshujianmingmulu*, such as typos and errors and lack of consistency in its descriptions. Nevertheless, *Sikuquanshujianmingmulu* was highly regarded as a valuable catalog in the history of Chinese bibliography concerning the fact that it had unity relatively in terms of its descriptions and omitted or insufficient information from *Zongmutiyao* were corrected and augmented in *Sikuquanshujianmingmulu*, and therefore, it played a role in building bridges to access *Sikuquanshu* and its *Zongmutiyao* and it was reorganized to be a practical catalog so that users could use it in an easy and convenient manner.

Key words: Bibliographical elements, Ji-yun, *Sikuquanshuzongmutiyao*, *SikuquanshuJianmingmulu*, Qing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syly@ewha.ac.kr)

접수일: 2018년 2월 20일 최초심사일: 2018년 3월 6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16일  
서지학연구, 제73집, 179-203,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3.179]

## 1. 서론

『四庫全書總目提要』는 紀昀(1724-1805) 등이 주축이 되어 편찬한 것으로 『四庫全書』 수록 도서의 서지와 해제를 기술한 분류순 해제목록이다. 1773년(건륭 38) 編修에 착수하여 1781년(건륭 46)에 초고를 완성하고, 수정보완 끝에 1795년(건륭 60)에 최종 완성하였다.<sup>1)</sup> 모두 200권인 이 목록은 典籍 3,461종 79,309권과 存目 6,793종 93,565권을 수록하고 있는데, 당시 중국 역사상 최대의 관찬 목록으로 이전의 중국 목록학을 집대성한 것이다.<sup>2)</sup> 그러나 200권이 넘는 이 목록이 너무 방대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권으로 간략하게 편찬한 것이 『四庫全書簡明目錄』인데, 이를 통해 『총목』에 쉽게 접근하고, 『총목』을 통해 『四庫全書』를 보게 하려는 것이 그 편찬의도이다. 이 목록은 1774년(건륭 39)에 편찬 명령을 받아 1782년(건륭 47)에 완성된 것으로, 전적 3,470종을 수록하였는데 『사고전서총목제요』의 存目は 제외되었지만 『사고전서총목제요』의 축약판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비록 분량에 있어서 『사고전서총목제요』의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검색이 용이하고 휴대하기 편해서 당시 학자들이 거의 한 권씩 소장하였으며, 이 목록을 통해서 수서를 할 정도로 그 유용성이 상당히 높았다. 魯迅은 친구 아들을 위해 선정한 고전목록 12종에 이 목록을 포함시켰으며, 司馬朝軍은 이 목록에 대해 중국목록학의 숨겨진 보물이라고 높이 평가할 정도였다.<sup>3)</sup>

이처럼 『사고전서간명목록』은 그 모본 격인 『사고전서총목제요』를 효과적으로 축약한 목록인 만큼 목록기술방식 등에서 『사고전서총목제요』를 그대로 답습했을 것이라 짐작되지만, 실제로 양 목록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양자 간의 차이점이 확인되어 그 비교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물론 하나의 저본을 두고 만들어진 축약본이라는 사정 탓에 목록기술방식에서의 상이점을 찾아내기는 어렵겠지만, 세부적인 기술요소로 들어가 상세히 살펴보면 그 넘나들이 목록학적 견지에서 유의미한 구분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四庫全書簡明目錄』은 그 표제에 표현된 대로 간결[簡]하고 명료[明]한 목록을 표방하는 바, 그 편찬 방향이 분명하다. 그러나 간단함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도리어 불명료한 지점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명료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부가적인 기술이 동원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이 목록의 편찬 시기와 목적을 감안해 보면 『四庫全書簡明目錄』은 ‘簡明’ 이상의 역할을 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그래서 『四庫全書總目提要』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히 보완해서 기술하기도 하고, 잘못이 분명한 부분은 바로잡아 주기도 하며, 애매한 서술로 오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명료함을 더하도록 정리해두기도 하였다.

1) 崔富章, “『四庫全書總目』 武英殿本刊竣年月考察,” 『浙江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6(1)(2006. 1), 105.

2) 白福春, 劉琨, “『四庫全書總目』 收錄古籍數量及卷數訂正,” 『圖書館學刊』 4(2016. 4), 115-116.

이상용,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69(2017. 3), 267-286.

3) 胡露, 周錄祥, “四庫全書簡明目錄 淺論,” 『重慶社會科學』 5(2005), 57-58.

이상용, “『사고전서간명목록』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6(2013. 12), 153-154.

司馬朝軍, “『四庫全書總目 研究』”(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123 재인용.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우선, 『四庫全書總目提要』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지만<sup>4)</sup> 이에 비해 『四庫全書簡明目錄』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아서<sup>5)</sup> 양자 간의 균등한 비교 작업이 실현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 드물게 이루어진 연구 성과조차도 『사고전서간명목록』 자체의 목록기술방식을 간략히 살피면서 조선시대 해제목록과 비교하거나,<sup>6)</sup> 『사고전서간명목록』을 조선조의 주자학적인 관점에서 본 내용을 다룬 정도였다.<sup>7)</sup> 양 목록을 간략하게 비교 조감한 연구로는 중국에서 몇 편 찾을 수 있다. 司馬朝軍<sup>8)</sup>은 『四庫全書總目提要』와 粵本 『四庫全書簡明目錄』을 대상으로 저록의 수량, 서명, 해제 등을 간략히 비교 고찰했으며, 江洲安<sup>9)</sup>은 『四庫全書總目』과 『四庫全書簡明目錄』에 수록된 서적의 판본을 조사해서 『增訂四庫簡明目錄標註』와 비교했고, 林申淸<sup>10)</sup>은 『四庫全書總目』과 『四庫全書簡明目錄』의 편찬시기의 선후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四庫全書總目提要』와 『四庫全書簡明目錄』의 목록기술요소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고전서총목제요』와 『사고전서간명목록』에서 채용한 목록기술방식에 따라 그 기술 요소 순으로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이 『사고전서간명목록』은 『사고전서총목제요』에 비해 분량이 적고, 가벼워서 휴대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어서, 그의 모체인 『사고전서』에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 준다는 점에서 양 목록의 비교는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전서간명목록』이 비록 『사고전서총목제요』의 축약판이기는 해도 이를 기계적으로 축약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내용을 교감하여, 보다 정선된 목록으로 편찬된 의미 있는 목록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武英殿本 『四庫全書總目提要』<sup>11)</sup>와 文淵閣 原鈔本 『四庫全書簡明目錄』<sup>12)</sup>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으므로<sup>13)</sup> 다른 판본과 비교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 4) 『四庫全書總目』 관련 연구는 리상용,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69(2017. 3), 268-289 참조.
- 5) 胡露, “『四庫全書簡明目錄』經部, 易, 書, 詩, 禮四類訂誤,” 『圖書館理論與實踐』 1(2014), 54-57.  
康東升, “『四庫全書簡明目錄』研究,” 『商業文化』 8(2008), 204.  
胡露, 周錄祥, “『四庫全書簡明目錄』淺論,” 『重慶社會科學』 5(2005), 57-62.  
胡露, 周錄祥, “『四庫全書簡明目錄』·集部·別集類 訂誤,” 『圖書館雜誌』 10(2005), 70-72.  
周錄祥, “『四庫全書簡明目錄』·集部 訂誤,” (碩士學位論文, 南京師範大學, 2005).  
段晶晶, “『四庫全書簡明目錄標註』: 中國重要的古籍版本目錄,” 『圖書館理論與實踐』 4(2003), 85-86.  
李步嘉, “『增訂四庫簡明目錄標註』『販書偶記』補正,” 『古籍整理研究學刊』 1(1991), 27-29.
- 6) 리상용, “『사고전서간명목록』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6(2013. 12), 151-183.
- 7) 김동식, 이용률, “조선과 청나라 문인의 교류와 특징,” 『韓國漢文學研究』 61(2016. 3), 225-255.  
남윤덕, 이용률, “윤행입의 청대 초기 고증학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 『국학연구』 23(2013), 379-406.  
이 밖에 역주본(紀昀 等著, 김만원 역, 『사고전서간명목록역주』(서울: 역락, 2017))이 나와 있으나 서문에 수록한 간략한 해제 이외의 연구내용은 담아내지 않고 있다.
- 8) 司馬朝軍, “『四庫全書總目』與『四庫全書簡明目錄』之比較,” 『上海高校圖書情報學刊』 2002(02), 58-59.  
이 논문에서는 ‘粵本’ 즉 문연각본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사고전서간명목록』의 광동관각본을 저본으로 삼아 연구하였다.
- 9) 江洲安, “『四庫全書總目』與『增訂四庫簡明目錄標註』,” 『歷史教學問題』 (1984. 6), 60(50).
- 10) 林申淸, “『四庫全書總目』與『四庫全書簡明目錄』成書先後,” 『黑龍江圖書館』 (1990. 6), 59-60.
- 11) 永瑤, 紀昀 等 武英殿本 『四庫全書總目提要』. 影印本.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中國72 [1983].

## 2. 목록기술요소비교

『사고전서총목제요』(이하 『총목』이라 함)와 『사고전서간명목록』(이하 『간명목록』이라 함)은 서명주기입법을 취하였다. 양 목록의 기술 순서를 살펴보면, 『총목』은 표제, 권수, 판본, 저자의 소속 왕조,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안어 등으로 구성되고, 『간명목록』은 표제, 권수, 저자의 소속 왕조,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안어 등으로 구성되었다. 양 목록은 목록 기술면에서 체제가 유사하지만, 차이점을 살펴보면, 『총목』에서는 판본표시를 했지만, 『간명목록』에서는 이를 생략한 점이다. 양 목록의 비교 과정에서 해제와 안어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목록기술요소와 관련된 경우에만 일부 다루었다.

### 2.1 표제

표제의 경우, 『간명목록』은 『총목』에 근거하여 대부분 동일하게 표시하였지만 수정한 사례가 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총목』에 수록된 표제를 간략하게 줄인 경우가 있다. 『大唐創業起居注』는 大자를 삭제하여 『唐創業起居注』로, 『宋九朝編年備要』에서는 宋을 삭제하고 『九朝編年備要』로 표시하였다. 이 같은 사례로 『王端毅奏議』, 『元名臣事畧』, 『開國方略』, 『保命集』 등등이 있다. 이는 표제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줄여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나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줄인 경우를 의미한다.

『총목』	『간명목록』
大唐創業起居注	唐創業起居注
宋九朝編年備要	九朝編年備要
王端毅奏議	王端毅奏議
元朝名臣事畧	元名臣事畧
皇清開國方略	開國方略
病機氣宜保命集	保命集

나) 『총목』의 표제를 보다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서적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수정한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사례로 『諸臣奏議』는 『宋名臣奏議』로 수정하여 宋대의 명신주의라는 점을 알려주고, 『春秋傳說』은 『春秋左氏傳說』로 수정하여 『春秋』 三傳 가운데 左氏의 傳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 같은 사례로 『尙書七篇解義』, 『鍼灸甲乙經』, 『周易像象管見』 등등이 있다.

12) 永瑤, 紀昀 等 文淵閣 原鈔本 『四庫全書簡明目錄』.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72 [1983].

13)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網上版)에 수록된 『사고전서총목제요』와 『사고전서간명목록』을 기준으로 삼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원문을 대조해서 조사하였다.

이는 표제만으로도 책의 내용이 더 분명히 드러나도록 수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총목』	『간명목록』
諸臣奏議	宋名臣奏議
春秋傳說	春秋左氏傳說
尙書解義	尙書七篇解義
甲乙經	鍼灸甲乙經
像象管見	周易像象管見

다) 동일 표제를 지닌 전적 가운데 先後나 重修 여부에 따라 구분이 필요할 때, 그 내용을 附記한 경우가 있다. 『총목』에서 『漢紀』, 『廣韻』 등으로 표시한 표제를 『간명목록』에서는 『前漢紀』, 『原本廣韻』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간명목록』에서 『漢紀』를 『前漢紀』로 표시한 이유는 『後漢紀』에 대비해서 ‘前’자를 붙인 것으로 보이고, 『廣韻』을 『原本廣韻』으로 표시한 이유는 『廣韻』의 판본이 2종<sup>14)</sup> 있는데 陳彭年, 邱雍 등이 편찬한 『重修廣韻』과 구분하느라 ‘原本’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총목』	『간명목록』
漢紀	前漢紀
廣韻	原本廣韻

라) 누구의 저작인지 구별하기 쉽도록 주로 저자의 ‘姓’ 또는 ‘姓+氏’의 형식으로 표제 앞에 관기한 경우가 있다. 먼저 저자의 ‘姓’을 관기한 사례로서 『范忠貞集』, 『范文正集』, 『林登州集』 등등이 있는데, 대개 여러 사람이 같은 호를 지니거나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렇게 하였다.

『총목』	『간명목록』
忠貞集	范忠貞集
文正集	范文正集
登州集	林登州集

다음으로 ‘姓+氏’의 형식으로 관기한 사례로서 『尙書詳解』를 들 수 있다. 『총목』에서 『尙書詳解』라는 표제로 夏僕, 胡士行, 陳經 등 세 사람이 편찬한 책을 수록했는데, 『간명목록』에서는 이들 서적의 표제만 보아도 누구의 저작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각각 夏氏, 胡氏, 陳氏를 표제 앞에 붙여준 것이다.

『총목』	『간명목록』
尙書詳解二十六卷 永樂大典本 宋夏僕撰	夏氏尙書詳解
尙書詳解十三卷 內府藏本 宋胡士行撰	胡氏尙書詳解
尙書詳解五十卷 編修汪如藻家藏本 宋陳經撰	陳氏尙書詳解

14) 紀昀等, 『四庫全書總目』經部 小學類 韻書之屬, 廣韻五卷 內府藏本.  
“考世行廣韻 凡二本 一爲宋陳彭年邱雍等所重修 一爲此本”

특히 이 사례는 후학들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만한 서적인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부 춘추류의 사례를 보면, 수록서적 115종<sup>15)</sup> 가운데, 『총목』과 표제가 다른 서적이 16종인데, 이 중 ‘姓+氏’의 형식으로 수정한 경우가 『蘇氏春秋集解』, 『崔氏春秋經解』, 『葉氏春秋傳』 등등 12종이 나왔다. 이 밖에 『간명목록』에서 ‘姓+氏’를 붙인 경우는 전 주제분야에 걸쳐서 고르게 나오고 있다.

『총목』	『간명목록』
易說	惠氏易說
毛詩集解	段氏毛詩集解
唐韻考	孫氏唐韻考
續後漢書	蕭氏續後漢書
南唐書	馬氏南唐書
石經考	萬氏石經考
香譜	陳氏香譜

이 같은 사례는 이용자들이 헛갈리거나 오해를 살만한 서적인 경우 표제 앞에 저자의 성이나 성씨를 관기해 줌으로써 표제를 보다 분명하게 해 준 것이다. 특히 주해서나 해설서의 경우 원서나 원저작자보다는 주해자나 해설자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까닭에 그들을 앞머리에 세움으로써 한눈에 알아보게 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는 반대로 표제에 포함된 저자의 성이나 저자명을 삭제한 경우도 있다. 주자의 시호인 ‘文公’만으로도 朱文公임을 알 수 있고, 圭峰 역시 羅玘의 호이므로 특별히 성을 관기하지 않아도 누구의 저작인지 구별이 가능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총목』	『간명목록』
朱文公易說	文公易說
羅圭峰文集	圭峰集

마) 부록, 보유, 속집 등 원본과 별도로 편찬된 서적을 표제에서 삭제한 경우도 있으며,

『총목』	『간명목록』
蘆川歸來集五卷 附錄一卷	蘆川歸來集十卷
海陵集二十三卷 外集一卷	海陵集二十三卷

이와 반대로 부록, 보유 등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총목』	『간명목록』
湯子遺書十卷	湯子遺書十卷 附錄一卷
未軒文集十二卷	未軒文集十二卷 補遺二卷

15) 紀昀等, 『四庫全書總目』經部 春秋類.  
 “右春秋類 一百十四部 一千八百一卷 附錄一部 十七卷”

바) 표제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오자가 난 경우도 여러 종 있다. 『原本周易本義』는 『原本周義本義』로, 『大易象數鉤深圖』는 『大學象數鉤深圖』 등으로 표제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로 『春秋左氏傳史類始末』, 『五經稽稽』 등등이 있다.

『총목』	『간명목록』
原本周易本義	原本周義本義
大易象數鉤深圖	大學象數鉤深圖
春秋左氏傳史類始末	春秋左氏傳史類始末
五經稽疑	五經稽稽

이처럼 오자가 나오는 것은 도서의 편찬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으로 사고관 신하의 역사적인 한계와 여러 차례의 전사와 판각 등으로 인한 오류를 들 수 있다. 또한 李裕民의 『四庫提要訂誤』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저술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제요의 수준 역시 차이가 나는데다가 주필 紀昀이 최종적으로 문장을 통일하고 정리하였지만, 紀昀의 개인적인 지식 역시 유한하고 주관성이 강해서 수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착오가 새로 나왔다.<sup>16)</sup> 고 한 점으로 보아 『간명목록』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교감은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2 권수

권수는 서지적 권수로 주로 완질의 권수를 말한다. 『간명목록』의 권수표시는 『총목』과 거의 동일하지만, 드물게 차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판본에 따라 권수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총목』에서 『欽定明臣奏議』의 권수를 40권으로 표시했는데 『간명목록』에서는 『총목』과는 달리 20권으로 표시하였다. 『欽定明臣奏議』의 권수에 대해 살펴보면, 『총목』의 文淵本, 文津本, 文溯本 등에 수록된 것은 40권본이지만, 浙本과 粵本은 20권본이다.<sup>17)</sup> 『六經圖』의 경우에도 『총목』에서는 6권인데, 『간명목록』에서는 10권으로 표시하였다. 『六經圖』 역시 6권본이 주종이지만, 판본에 따라 10권본<sup>18)</sup>도 있는 만큼 양 목록에서 권수 차이가 나는 경우는 각기 다른 판본을 대상으로 한 데 기인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로 『大易通解』, 『東坡書傳』, 『欽定日下舊聞考』 등등이 있다.

16) 周錄祥, “『四庫全書簡明目錄·集部』訂誤,” (碩士學位論文, 南京師範大學, 2005), i, 8.

李裕民의 『四庫提要訂誤』(香港: 中華書局, 2005)의 내용 재인용함.

17) 龔鵬程, 『四庫全書總目提要校證』例說 ([http://blog.sina.com.cn/s/blog\\_492808ed01017x7o.html](http://blog.sina.com.cn/s/blog_492808ed01017x7o.html))

“如欽定明臣奏議 文淵文津文溯本均與殿本同四十卷 但浙本粵本作二十卷”

18) 吳長庚, 馮會明, “『六經圖』碑本書本之流傳與演變.” 『江西社會科學』2(2003), 65.

楊甲, 六經圖 影印版 十卷. PDF(<http://www.guoxuedashi.com/guji/2058k/>)

『총목』	『간명목록』
欽定明臣奏議四十卷	御選明臣奏議二十卷
六經圖六卷	六經圖十卷
大易通解四卷	大易通解十五卷
東坡書傳十三卷	東坡書傳二十卷
欽定日下舊聞考一百二十卷	欽定日下舊聞考一百六十卷

나) 별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左傳紀事本末』의 경우 『총목』에서는 54권으로 표시하고, 『간명목록』에서는 53권으로 표시하였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의 거의 모든 소장처에서 53권으로 표시하여 『총목』에서 권수기입에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고전서』에 수록된 『左傳紀事本末』이 53권이고 목록이 별도로 있으며, 貴州省圖書館에 53권, 목록1권, 12책으로 구성된 판본을 소장하고 있는 점<sup>19)</sup>으로 보아 『총목』에서 54권으로 표시한 것은 목록을 권수에 합산해서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권수합산에서 목록은 제외되므로 『간명목록』의 권수표시가 온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밖에 부록, 속집, 후집, 별집 등 원본과 별도로 편찬된 서적의 합산 과정에서도 권수의 차이가 나올 수 있겠다.

『총목』	『간명목록』
左傳紀事本末五十四卷	左傳紀事本末五十三卷

다) 『총목』의 권수표시 또는 권의 명칭을 『간명목록』에서 잘못 표시한 경우도 있다. 『西湖志纂』의 경우 『총목』에서 12권으로 표시한 것을 『간명목록』에서는 20권으로 표시하였다. 이 책의 판본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 12권본과 15권본 『西湖志纂』은 있지만,<sup>20)</sup> 20권본은 찾지 못하였다. 숫자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匡謬正俗』의 경우에도 ‘卷’을 ‘部’로 그 명칭을 잘못 표기하였다.

『총목』	『간명목록』
西湖志纂十二卷	西湖志纂二十卷
匡謬正俗八卷	匡謬正俗八部

라) 『총목』에서는 권수표시를 했는데, 『간명목록』에서 그 표시를 생략한 경우가 있다. 그 예로 『欽定蘭州紀畧』, 『欽定石峯堡紀畧』, 『欽定臺灣紀畧』 등등이 있다.

『총목』	『간명목록』
欽定蘭州紀畧二十一卷	欽定蘭州紀畧
欽定石峯堡紀畧二十卷	欽定石峯堡紀畧
欽定臺灣紀畧七十卷	欽定臺灣紀畧

19) 國學大師(<http://www.guoxuedashi.com>) 참조 [검색일 2018.01.10.]

20) 國學大師(<http://www.guoxuedashi.com>) 참조 [검색일 2018.01.10.]

## 2.3 판본

『총목』에서는 다양하게 판본을 표시한 데 비해 『간명목록』에서는 그 표시를 생략하고 있다. 『총목』에서 판본을 표시해 준 이유는 그 서적의 출처 또는 내원을 알려준 것이다. 『간명목록』이 『총목』에 접근하는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총목』을 축약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굳이 그 사항을 넣어서 번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이며, 간명하게 편찬하려는 목적에도 부합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목록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면서도 실제로는 『총목』을 보조하는 성격임을 잘 드러내는 사례이다.

『총목』	『간명목록』
周易舉正三卷 浙江巡撫採進本	周易舉正三卷
周易集解十七卷 內府藏本	周易集解十七卷
禹貢指南四卷 永樂大典本	禹貢指南四卷
羣經音辨七卷 通行本 宋賈昌朝撰	羣經音辨七卷
春秋五禮例宗七卷 浙江吳玉壻家藏本	春秋五禮例宗七卷

## 2.4 저자

### 2.4.1 저자의 소속 왕조

저자의 소속 왕조의 경우, 『간명목록』에서는 『총목』의 방식을 따르긴 했지만,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총목』에서 표시한 저자의 소속 왕조의 오류를 수정한 경우가 있다. 먼저 『총목』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 준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대개 『총목』에서 舊本에 의거하여 저자의 소속 왕조를 표시한 것인데 『간명목록』에서는 저자의 소속 왕조를 표시한 다음에 舊本の 오류를 밝히고 있다. 『荊楚歲時記』의 경우 『총목』에서는 저자 宗懷의 소속 왕조를 ‘晉’으로 표시하였는데, 『간명목록』에서는 이를 ‘梁’으로 수정하고 ‘구분에서 그를 晉人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한 『顏氏家訓』의 경우에도 『총목』에서는 顏之推의 소속 왕조를 ‘北齊’라고 표시했는데, 『간명목록』에서는 이를 ‘隋’라고 정정하고 ‘舊本에서 그를 北齊人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례에서 宗懷의 소속 왕조 정정은 온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顏之推의 경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간명목록』에서 그의 소속 왕조를 隋로 잡은 것은 『총목』의 저자표시와 해제<sup>21)</sup>, 그가 隋 文帝 때 學士가 된 점<sup>22)</sup> 등을 고려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의 인명사전과

21) 紀昀等, 『四庫全書總目』, 子部 雜家類, 雜學之屬, 顏氏家訓二卷 江西巡撫採進本.

“舊本題北齊黃門侍郎顏之推撰 考陸法言切韻序 作於隋仁壽中 所列同定八人之推與焉 則實終於隋 舊本所題 蓋據作書之時也”

고서목록에서 안지추의 소속 왕조를 北齊로 잡아주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수정은 그리 잘했다고 보기는 힘들겠다.

『총목』	『간명목록』
荊楚歲時記一卷 兩江總督採進本 舊本題晉宗懷撰	荊楚歲時記一卷 梁宗懷撰 舊本題晉人誤也
顏氏家訓二卷 江西巡撫採進本 舊本題北齊黃門侍郎顏之推撰	顏氏家訓二卷 隋顏之推撰 舊作北齊人者誤

다음으로 『총목』의 표시 사항에 대해 『간명목록』에서 오류를 범한 경우도 있다. 『孟子正義』의 주해자인 趙岐의 소속 왕조를 ‘宋’으로, 『老子註』의 찬자 王弼의 소속 왕조를 ‘晉’으로 잘못 표시한 것이다.

『총목』	『간명목록』
孟子正義十四卷 內府藏本 漢趙岐註	孟子正義十四卷 宋趙岐註
老子註二卷 兵部侍郎紀昀家藏本 魏王弼撰	老子註二卷 晉王弼撰

나) 『총목』에서 표시한 시대를 생략한 경우도 있다. 『총목』에 수록된 『三國志辨誤』, 『漢隸分韻』의 경우 不著撰人名氏로 표시한 다음에 ‘亦莫詳時代’, ‘亦無時代’라고 시대표시를 했는데, 『간명목록』에서는 그 표시를 삭제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어차피 시대와 연대를 고증할 만한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시기 역시 미상일 것이므로 굳이 시대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하며 번쇄한 내용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한 것이다.

『총목』	『간명목록』
三國志辨誤三卷 兩淮鹽政採進本 不著撰人名氏 亦莫詳時代	三國志辨誤三卷 不著撰人名氏
漢隸分韻七卷 江蘇巡撫採進本 不著撰人名氏 亦無時代	漢隸分韻七卷 不著撰人名氏

## 2.4.2 저자명

저자명표시<sup>23)</sup>는 『간명목록』에서 『총목』의 방식을 따랐지만, 『간명목록』이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수정 보완하였는데, 그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총목』에서 저자사항에 저자표시를 하지 않은 서적에 대해 저자표시를 해준 경우가 있다. 저자를 직접 표시한 경우가 있고, 구분을 통해서 저자를 표시한 경우가 있다. 먼저 저자를 직접 표시한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鄭志』의 경우 『총목』에서는 저자표시 없이, 해제에서 “『수서경적지』에 따르면 『鄭志』 11권은 魏 侍中 鄭小同이 편찬한 것”<sup>24)</sup>이라고 기술한데 비해, 『간명목록』에서는

22) 임종욱, 『중국역대인명사전』 (서울: 이화문화사, 2010). 885.

23) 원본에서는 표제와 권수를 기입한 다음에 줄을 달리해서 저자명을 표시했는데 여기에서는 편의상 한 줄로 표시하였다.

24) 紀昀等, 『四庫全書總目』, 經部 五經總義類, 鄭志三卷 補遺一卷 兩江總督採進本.

“案隋書經籍志 鄭志十一卷 魏侍中鄭小同撰”

‘魏鄭小同撰’이라고 저자사항에 저자를 명시한 것이다. 『간명목록』에서는 『鄭志』의 편자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鄭小同이 명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총목』에서처럼 해제에서 저자를 소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후대에 나온 사건을 조사해 보아도, 『漢韓大辭典』에서 『鄭志』에 대해 “삼국 시대 魏 鄭小同이 鄭玄과 그의 제자들 사이의 문답을 엮은 책.”<sup>25)</sup>이라고 하여 엮은이를 鄭小同으로 소개하고, 중국의 『經學辭典』에서도 『鄭志』의 찬자를 鄭小同으로 표시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점<sup>26)</sup>으로 보아 『간명목록』에서 저자표시를 명확하게 잘 해 주었다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사례로서 『襄陽間評』, 『耆舊續聞』 등등을 들 수 있다.

『총목』	『간명목록』
鄭志三卷 補遺一卷 兩江總督採進本	鄭志三卷 補遺一卷 魏鄭小同撰
襄陽間評八卷 永樂大典本	襄陽間評八卷 宋袁文撰
耆舊續聞十卷 浙江鮑士恭家藏本	耆舊續聞十卷 宋陳鵠撰

다음으로 舊本을 통해서 저자표시를 한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례는 저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夏侯陽算經』은 현재 중국 國家圖書館에서 夏侯陽撰으로 저자 표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서적에 대해서는 고증이 필요하겠다.

『총목』	『간명목록』
夏侯陽算經三卷 永樂大典本	夏侯陽算經三卷 舊本題夏侯陽撰
黃石公三畧三卷 通行本	三畧三卷 舊本題黃石公撰
鬼谷子一卷 兩江總督採進本	鬼谷子一卷 舊本題鬼谷子撰

나) 『총목』에서 표시한 저자에 대해 그 오류를 정정한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저자를 수정한 경우와 舊本을 통해서 저자를 수정한 후에 기존의 저자가 오류라고 밝힌 경우가 있다.

먼저 저자를 수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총목』에서 『筆精』의 저자를 徐焞이라고 했는데 『간명목록』에서는 徐渤로 정정하고, 『浮溪集』의 저자 汪藻를 『浮溪文粹』의 저자로 잘못 알고 표시한 오류를 『간명목록』에서는 不著編輯者名氏로 정정하였다.

『총목』	『간명목록』
筆精八卷 福建巡撫採進本 明徐焞撰	筆精八卷 明徐渤撰
浮溪文粹十五卷 江蘇巡撫採進本 宋汪藻撰	浮溪文粹十五卷 不著編輯者名氏

다음으로 舊本을 통하여 저자를 표시한 후에 기존의 저자가 오류라고 설명한 경우도 있다. 『晏子春秋』의 경우, 『총목』에서는 ‘舊本題齊晏嬰撰’ 즉 ‘舊本에서는 齊 晏嬰이 찬술했다’고 하였는데, 『간명목록』에서는 ‘撰人名氏無考’이며, 구본에서 晏嬰이 찬술했다는 것은 오류라고 밝혔다. 최근 연구에서

25)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13』(서울: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9).

26) 黃開國主編, 『經學辭典』(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3).

趙穎, “鄭小同與『鄭志』研究,”(碩士學位論文, 山東師範大學, 2014).

『晏子春秋』의 저자에 대해 이영호가 “『晏子春秋』의 作者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晏子가 죽은 후 그의 賓客들이 그의 어록과 행실을 모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sup>27)</sup>고 기술하는 등 『간명목록』에서 취한 입장이 통용됨에 비추어 『간명목록』의 수정이 타당해 보인다. 이 같은 사례로 『孔子編年』이 있다.

『총목』	『간명목록』
晏子春秋八卷 編修勵守謙家藏本 舊本題齊晏嬰撰	晏子春秋八卷 撰人名氏無考 舊題晏嬰撰者誤也
孔子編年五卷 浙江范懋柱家天一閣藏本 舊本題宋胡舜陟撰	孔子編年五卷 宋胡仔撰 舊本或題其父舜陟誤也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간명목록』에서 오류를 범한 경우도 있다. 『周易筮述』의 저자 ‘王宏撰’을 ‘王宏’으로, 『周易傳注』는 李珙으로 잘못 표시하였다.

『총목』	『간명목록』
周易筮述八卷 陝西巡撫採進本 國朝王宏撰撰	周易筮述八卷 國朝王宏撰
周易傳注七卷 附周易筮考一卷 直隸總督採進本 國朝李珙撰	周易傳註七卷 附周易筮考一卷 國朝李珙撰

다) 『총목』에서 舊本을 통해 표시한 저자에 대해 舊本을 삭제하고 표시한 경우가 있다. 『嶺表錄異』의 劉恂, 『畫鑒』의 湯垕, 『通鑑續編』의 陳桎 등이 바로 그 예인데,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에서도 그렇게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로 『蘭亭考』, 『續畫品』 등등이 있는데, 『총목』보다 저자명을 명확하게 밝혀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총목』	『간명목록』
嶺表錄異三卷 永樂大典本 舊本題唐劉恂撰	嶺表錄異三卷 唐劉恂撰
畫鑒一卷 兩江總督採進本 舊本題宋東楚湯垕君載撰	畫鑒一卷 元湯垕撰
通鑑續編二十四卷 左副都御史黃登賢家藏本 舊本題元陳桎撰	通鑑續編二十四卷 明陳桎撰
蘭亭考十二卷 浙江鮑士恭家藏本 舊本題宋桑世昌撰	蘭亭考十二卷 宋桑世昌撰
續畫品一卷 浙江巡撫採進本 舊本題陳吳興姚最撰	續畫品一卷 陳姚最撰

또한 『총목』에서 舊本을 통해서 애매하게 저자표시를 한 서적에 대해 『간명목록』에서 저자를 명확히 붙여준 경우가 있다. 『班馬異同』의 경우, 『총목』에서 ‘舊本或題宋倪思撰 或題劉辰翁撰’ 즉, ‘구본에서 宋 倪思가 찬술하였다고도 하고, 劉辰翁이 찬술하였다고도 한다.’고 저자를 애매하게 표시하였는데, 『간명목록』에서는 ‘宋倪思撰 劉辰翁評點’으로 명확하게 저자표시를 해주었다. 『총목』에서는 저자표시를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 “楊士奇의 발문에 涇溪 劉辰翁이 이 책을 지었다고 전하는데, 그 評論과 批點을 보면 지극히 정묘한 수준이라 涇溪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런데 『문헌통고』에서 倪思의 저술로 실었으니, 倪思가 지었고, 평론은 涇溪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의 말이 또한 망설여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sup>28)</sup>고 변명하고, 이어서 “『문헌통고』에서 이 책을 수록한 것은 사실

27) 이영호, “『晏子春秋』 文型 研究: 判斷文과 被動文을 중심으로,” 『韓國孔子學會』 27(2014. 11), 247.

28) 紀昀 等, 『四庫全書總目』, 史部 正史類, 班馬異同三十五卷 浙江汪汝璩家藏本.

“楊士奇跋曰 班馬異同三十五卷 相傳作於涇溪 觀其評泊批點 臻極精妙 信非涇溪不能 而文獻通考載爲倪思所撰 豈作於倪而評泊出於涇溪耶 其語亦爾持不決”

『직재서록해제』에 의거한 것인데 만약 유신옹에게서 나왔다면 진진손의 때에 어찌서 먼저 著錄할 수 있었을까? 이는 정녕코 따져보지 않아도 분명하다.”<sup>29)</sup>고 기술하여 이 책의 저자가 유신옹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총목』에서는 해제에서 이렇게 기술해 놓고도 저자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간명목록』에서는 분명하게 저자표시를 한 것이다. 『간명목록』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총목』<sup>30)</sup>을 참조했을 수도 있으며, 『哈佛大學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文獻』에서 明刻本 『班馬異同』의 저자를 ‘宋倪思撰 劉辰翁評’으로 표시한 점<sup>31)</sup>으로 보아, 『간명목록』에서 이를 참조해서 수정했을 수 있겠다.

『총목』	『간명목록』
班馬異同三十五卷 浙江汪汝璫家藏本 舊本或題宋倪思撰 或題劉辰翁撰	班馬異同三十五卷 宋倪思撰 劉辰翁評點

라) 『총목』에서 표시한 저자에 대해 원저자 또는 원주해자를 넣어 준 경우가 있다. 『九家集註杜詩』의 경우 『총목』에서 ‘郭知達編’으로 편자만을 표시한 데 비해 『간명목록』에서는 ‘杜甫撰 郭知達集註’라고 하여 『총목』에서 기재하지 않은 원저자 杜甫를 추가하여, 책의 실질적인 원저자의 중요성을 더 높여 준 것이다. 이 같은 사례로 『新本鄭氏周易』, 『陸氏易解』 등등이 있다.

『총목』	『간명목록』
九家集註杜詩三十六卷 內府藏本 宋郭知達編	九家集註杜詩三十六卷 唐杜甫撰 宋郭知達集註
新本鄭氏周易三卷 江蘇巡撫採進本 國朝惠棟編	新本鄭氏周易三卷 漢鄭玄撰
陸氏易解一卷 浙江吳玉墀家藏本 明姚士舜所輯吳陸績周易注也	陸氏易解一卷 吳陸績撰

마) 『총목』에서 표시한 저자에 대해 저자의 인물의 비중에 따라서 수정한 경우도 있다. 『中庸輯畧』의 경우, 『총목』에서는 ‘宋石塾[실은 石<sup>32)</sup>]編 朱子刪定’으로 저자표시를 한데 비해 『간명목록』에서는 ‘宋朱熹編’으로 수정하고, ‘石塾의 『中庸集解』를 토대로 장황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윤색한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해 주었다. 『총목』과 비교해 보면 편자가 뒤바뀐 것이다. 이 책의 경우 주자가 산정한 저본이 石塾이 편찬한 『中庸集解』이므로<sup>33)</sup>, 『총목』에서 ‘石塾編 朱子刪定’으로 표시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총목』에 수록된 많은 서적 가운데 『간명목록』에서 『中庸輯畧』을

29) 紀昀等, 『四庫全書總目』, 史部 正史類, 班馬異同三十五卷 浙江汪汝璫家藏本.

“案通考之載是書 實據直齋書錄解題 使果出於辰翁 則陳振孫時 何得先爲著錄 是固可不辨而明矣”

30) 紀昀等, 『四庫全書總目』, 史部 正史類存目, 班馬異同評三十五卷 浙江汪汝璫家藏本.

“宋倪思撰 劉辰翁評”

31) 『哈佛大學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文獻』(共98冊) (<http://www.xy980.net/xq10/KW2851.htm>)

32) 승려 석돈의 경우 그 표기가 石塾과 石塾이 혼용되고 있다.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에 편찬한 『漢韓大辭典10』에 의하면 石塾은 石塾의 다른 표기라고 해설했다. 본 논문에서는 『사고전서간명목록』에서 石塾으로 표시하였으며, 嚴佐之가 2010년 『朱子學國際學術研討會暨朱子誕辰880周年紀念會文集』에 수록한 논문(嚴佐之, “朱子 『中庸輯畧』 芟節石塾 『中庸集解』 原本條目考: 論芟節原本條目的經典詮釋意圖. 人文與價值,” 『朱子學國際學術研討會暨朱子誕辰880周年紀念會文集』, 2010)을 그 다음해 다시 발표하면서(주24 참조) 그 제목에 나온 승려 석돈의 표기를 石塾으로 수정한 점을 감안해 石塾으로 표시하였다.

33) 嚴佐之, “朱子 『中庸輯畧』 芟節石塾 『中庸集解』 原本條目考: 兼論芟節原本條目的經典詮釋意圖,” 『湖南大學學報』 25(2011), 18.

선정한 이유가 이 책이 『중용』을 집략하였다는 사실보다 주자가 산정한 책이어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간명목록』에서 『총목』과 달리 저자를 ‘石齋編’이 아닌 ‘朱熹編’으로 표시한 것은 石齋에 비해 朱熹란 인물의 비중이 너무 커서 그렇게 수정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서적의 가치를 담보하는 대표성이 누구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드러내는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총목』	『간명목록』
中庸輯畧二卷 江蘇巡撫採進本 宋石齋[실은 齋]編 朱子刪定	中庸輯畧二卷 宋朱熹編 因石齋中庸輯畧[실은 中庸集解] 而刪其繁蕪

바) 『총목』에서 저자표시를 서술적으로 기술한 것을 『간명목록』에서 간략하게 표시한 경우가 있다. 『李衛公問對』와 『清河書畫表』의 경우 『총목』에서 기술한 내용을 함축하여 간명하게 저자표시를 해준 것이다.

『총목』	『간명목록』
李衛公問對三卷 通行本 唐司徒并州都督衛國景武公李靖與太宗論兵之語 而後人錄以成書者也	李衛公問對三卷 舊本題唐李靖撰
清河書畫表一卷 浙江鮑士恭家藏本 明張丑記其家累世所藏書畫也	清河書畫表一卷 明張丑撰

이와 반대로 『총목』의 저자표시를 『간명목록』에서 서술형으로 수정 보완해 준 경우가 있다. 『春秋穀梁傳注疏』의 경우, 『총목』에서 ‘晉 范甯集解 唐 楊士助疏’라고 저자를 표시하였는데, 『간명목록』에서는 『총목』에서 표시한 저자 외에 ‘周穀梁赤所述而傳其學者錄爲書 舊題赤撰亦非也’ 즉, ‘周 穀梁赤이 기술한 것으로 학자에게 전해온 것을 기록해서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옛날에 穀梁赤이 찬자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내용을 서술형으로 추가하였다. 『간명목록』의 편찬목적이 『총목』을 간명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 경우 더 늘려서 기술한 것이다. 『간명목록』에서는 이미 저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도 『春秋』에 傳을 붙인 穀梁赤이 저자표시에 누락된 것을 보강하되, 그가 찬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간명목록』의 『春秋公羊傳註疏』 해제에서도 그 찬자에 대해 ‘舊本에서 公羊高가 찬술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公羊高는 傳述한 것’이라고 기술하여 앞의 내용과 일관되게 기술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총목』의 『春秋公羊傳註疏』에서 저자표시에 ‘公羊壽傳’을 넣었는데 『春秋穀梁傳注疏』에서 ‘穀梁赤傳’을 넣지 않아서 그렇게 했거나, 穀梁赤이나 公羊高는 공자가 편수한 『春秋』에 傳을 붙여 해석한 사람이지만 『春秋』의 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총목』	『간명목록』
春秋穀梁傳注疏二十卷 內府藏本 晉范甯集解 唐楊士助疏	春秋穀梁傳註疏二十卷 周穀梁赤所述而傳其學者錄爲書 舊題赤撰亦非也 晉范甯註 唐楊士助疏
春秋公羊傳註疏二十八卷 內府藏本 漢公羊壽傳 何休解詁 唐徐彥疏	春秋公羊傳註疏二十八卷 舊本題周公羊高撰 實高所傳述而其元孫壽及胡母子都錄爲書 漢何休註 唐徐彥疏

사) 『총목』에서 존귀한 인물에 대해 저자의 ‘姓+子’의 형식으로 표시한 것을 『간명목록』에서는 ‘姓+名’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총목』	『간명목록』
詩集傳八卷 通行本 宋朱子撰	詩集傳八卷 宋朱熹撰
擊壤集二十卷 河南巡撫採進本 宋邵子撰	擊壤集二十卷 宋邵雍撰
橫渠易說三卷 內府藏本 宋張子撰	橫渠易說三卷 宋張載撰
易傳四卷 直隸總督採進本 宋伊川程子撰	伊川易傳四卷 宋程頤撰

아) 『총목』에서는 저자표시를 하였는데 『간명목록』에서 이를 생략하거나, 해제에서 관련 내용을 기술한 경우가 있다.

『총목』	『간명목록』
太平惠民和劑局方十卷 指南總論三卷 兩淮鹽政採進本 舊本題宋庫部郎中提轄措置藥局陳師文等奉勅編	太平惠民和劑局方十卷 指南總論三卷
幸魯盛典四十卷 國朝襲封衍聖公孔疏圻等撰進	幸魯盛典四十卷 康熙二十三年 聖駕東謁闕里 衍聖公孔毓圻等恭述典禮 輯成是編進呈
欽定武英殿聚珍板程式一卷 乾隆四十一年戶部侍郎金簡恭撰進呈	欽定武英殿聚珍板程式一卷 乾隆三十八年詔甄擇四庫全書善本刊刻流布 侍郎金簡請以活字印行 蒙賜名曰聚珍版 金簡因綜述其法 編此書奏進

이 밖에 양 목록에서는 서적의 유형별로 다양하게 저자표시를 했는데 그 차이점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정, 어제, 어찬서의 경우, 『총목』에서 서술적으로 기술한 부분을 축약하여 보다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가 있다.

『총목』	『간명목록』
庭訓格言一卷 雍正八年 世宗憲皇帝追述聖祖仁皇帝天語親錄成編	庭訓格言一卷 雍正八年 世宗憲皇帝御纂

또한 실질적인 편찬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총목』에서 어찬서 또는 어정서로 표시한 것을 명찬서로 수정한 사례도 있다. 『御纂周易折中』의 경우, 『총목』에서는 ‘聖祖仁皇帝御纂’으로 저자표시를 하였는데, 『간명목록』에서는 ‘大學士李光地等奉勅撰’으로 수정하였다. 『총목』의 해제에서 “성조인황제가 대학사 이광지에게 조서를 내려 많은 의견을 채집하여 가려내고 御覽하셔서 이 저작의 편찬을 확정하시도록 하였다.”<sup>34)</sup>고 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편찬을 담당한 사람은 이광지이다. 따라서 『간명목록』에서는 『총목』과 달리 실질적인 편찬자에 맞게 저자를 수정한 것이다. 『欽定月令輯要』의 경우에도 『총목』의 해제에서 “우리 성조인황제께서 유신들에게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34) 紀昀等, 『四庫全書總目』經部 易類, 御纂周易折中二十二卷.  
 “聖祖仁皇帝 … 詔大學士李光地 採摭羣言 恭呈乙覽 以定著是編”

별도로 편찬한 책”<sup>35)</sup>이라고 한 점을 보면 실질적인 편찬자는 신하이므로, 『간명목록』에서는 『총목』과는 달리 ‘大學士李光地等奉勅撰’으로 저자표시를 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로 『御纂朱子全書』, 『御定星歷考原』 등등이 있다.

『총목』	『간명목록』
御纂周易折中二十二卷 康熙五十四年 聖祖仁皇帝御纂	御纂周易折中二十二卷 康熙五十四年 大學士李光地等奉勅撰
欽定月令輯要二十四卷 圖說一卷 康熙五十四年 聖祖仁皇帝御定	御定月令輯要二十四卷 圖說一卷 康熙五十四年 大學士李光地等奉勅撰
御纂朱子全書六十六卷 康熙五十二年聖祖仁皇帝御定	御纂朱子全書六十六卷 康熙五十二年大學士李光地等奉勅撰
御定星歷考原六卷 康熙五十二年聖祖仁皇帝御定	御定星歷考原六卷 康熙五十二年大學士李光地等奉勅撰

이 밖에 어정을 삭제한 경우도 있다. 『康濟錄』의 경우 『총목』에서는 ‘乾隆四年御定’으로 저자표시를 했는데 『간명목록』에서는 ‘倪國璉撰’으로 표시하였다. 현재 이 책의 저자를 ‘倪國璉撰’ 외에 ‘清陸曾禹撰 倪國璉釐正’, ‘陸曾禹撰’, ‘倪國璉編’ 등등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다.<sup>36)</sup> 원찬자인 陸曾禹<sup>37)</sup>를 저자에 넣지 않은 점은 아쉽긴 하지만 『간명목록』에서 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저자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총목』	『간명목록』
欽定康濟錄六卷 乾隆四年御定	康濟錄六卷 國朝倪國璉撰

2) 명찬서의 경우, 『간명목록』은 『총목』의 기술방식을 따랐지만 수정 보완하였는데,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총목』에서 명찬서로 표시한 서적에 대해 『간명목록』에서 원찬자를 먼저 표시해 준 다음에 명찬서임을 부기해 준 경우가 있다. 『총목』의 『欽定蒙古源流』의 경우 ‘乾隆四十二年奉勅譯進’ 즉, ‘건륭42년 칙명을 받아 번역하여 진상한 것’이라고 저자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은 본래 몽고인이 편찬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간명목록』에서는 ‘蒙古小徹辰薩囊台吉撰’이라고 하여 원저자를 명시해준 다음에 명찬서임을 밝혀 주어 원찬자의 의미를 부각시켜 주고 있다.

『총목』	『간명목록』
欽定蒙古源流八卷 乾隆四十二年奉勅譯進 其書本蒙古人所撰	蒙古源流八卷 蒙古小徹辰薩囊台吉撰 乾隆四十二年奉勅譯進

35) 紀昀等, 『四庫全書總目』 史部 時令類, 欽定月令輯要二十四卷, 圖說一卷.

“我聖祖仁皇帝 … 特命儒臣 別爲編纂”

36) 國學大師(<http://www.guoxuedashi.com>) 참조 [검색일 2018.01.10.]

37) 紀昀等, 『四庫全書總目』 史部 政書類 邦計之屬, 欽定康濟錄六卷.

“乾隆四年御定 初 仁和監生陸曾禹作救飢譜 吏科給事中倪國璉爲檢擇精要 釐爲四卷 會詔翰林科道輪奏經史講義 國璉因恭錄進呈 皇上嘉其有裨於實用 命內直諸臣刪潤其詞 劄劄頒布 因賜今名其書”

『四庫全書總目提要』와 『四庫全書簡明目錄』의 목록기술요소 비교 연구

㉞ 『총목』에서 ‘봉칙+저작역할어’의 형식으로 표시한 서적에 대해 ‘奉勅’을 삭제한 경우가 있고,

『총목』	『간명목록』
周書五十卷 內府刊本 唐令狐德棻等奉勅撰	周書五十卷 唐令狐德棻等撰
舊唐書二百卷 內府刊本 晉劉昫等奉勅撰	舊唐書二百卷 晉劉昫等撰
晉書一百三十卷 內府刊本 唐房喬等奉勅撰	晉書一百三十卷 唐房喬等撰

이와 반대로 『총목』에서 ‘저자명+저작역할어’의 형식으로 표시한 서적을 ‘봉칙+저작역할어’의 형식으로 수정한 경우도 있었다.

『총목』	『간명목록』
唐開元占經一百二十卷 浙江巡撫採進本 唐瞿曇悉達撰	唐開元占經一百二十卷 唐開元中太史監瞿曇悉達奉勅撰
太乙金鏡式經十卷 浙江巡撫採進本 唐王希明撰	太乙金鏡式經十卷 唐開元中王希明奉勅撰
藝文類聚一百卷 內府藏本 唐歐陽詢撰	藝文類聚一百卷 唐歐陽詢等奉勅撰

㉟ 저자 앞에 관직명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경우가 있고,

『총목』	『간명목록』
春秋大全七十卷 內府藏本 明永樂中胡廣等奉勅撰	春秋大全七十卷 明永樂中翰林學士胡廣等奉勅撰
貴州通志四十六卷 通行本 國朝大學士鄂爾泰等監修	貴州通志四十六卷 國朝雲貴總督鄂爾泰等監修

이와 반대로 저자의 관직명을 생략한 경우도 있다.

『총목』	『간명목록』
大唐開元禮一百五十卷 兩淮鹽政採進本 唐太子太師同中書門下三品兼中書令蕭嵩等奉勅撰	大唐開元禮一百五十卷 唐蕭嵩等奉勅撰
營造法式三十四卷 浙江范懋柱家天一閣藏本 宋通直郎試將作少監李誠奉勅撰	營造法式三十四卷 宋李誠奉勅撰
明一統志九十卷 內府藏本 明吏部尚書兼翰林院學士李賢等奉勅撰	明一統志九十卷 明李賢等奉勅撰
政和五禮新儀二百二十卷 兩淮馬裕家藏本 宋議禮局官知樞密院鄭居中等奉勅撰	政和五禮新儀二百二十卷 宋鄭居中等奉勅撰

㊱ 봉칙자의 수를 줄이고 대표저자만 표시한 경우가 있고,

『총목』	『간명목록』
明集禮五十三卷 浙江范懋柱家天一閣藏本 明徐一夔梁寅劉于周於諒胡行簡劉宗弼董彝蔡琛陸公瑛曾魯同奉勅撰	明集禮五十三卷 明洪武三年徐一夔等奉勅撰
文苑英華一千卷 御史劉錫嘏家藏本 宋太平興國七年李昉扈蒙徐鉉宋白等奉勅編	文苑英華一千卷 宋太平興國七年李昉等奉勅編
易經通註九卷 湖北巡撫採進本 國朝大學士傅以漸左庶子曹本榮奉勅撰	易經通註八卷 國朝大學士傅以漸等奉勅撰

㉞ 봉칙자를 새로 넣어준 경우도 있으며,

『총목』	『간명목록』
御覽經史講義三十一卷 乾隆十四年奉勅編	御覽經史講義三十一卷 乾隆十四年大學士蔣溥等奉勅編
洪武正韻十六卷 江蘇周厚埜家藏本 明洪武中奉勅撰	洪武正韻十六卷 明洪武中翰林侍講學士樂韶鳳等奉勅撰
大清律例四十七卷 乾隆五年奉勅撰	大清律例四十七卷 乾隆五年大學士三泰等奉勅撰
欽定協紀辨方書三十六卷 乾隆四年奉勅撰	欽定協紀辨方書三十六卷 乾隆四年莊親王允祿等奉勅撰

이와 반대로 봉칙자를 삭제한 경우도 있다.

『총목』	『간명목록』
平定三逆方畧六十卷 康熙二十一年大學士勒德洪等奉勅撰	平定三逆方畧六十卷 康熙二十一年奉詔修

3) 『총목』에서 저자사항에 저자를 표시하지 않고 ‘不著撰人名氏’, ‘不著編輯者名氏’ 등으로 표시한 서적에 대해 『간명목록』에서 저자를 밝혀준 경우가 있다. 저자를 직접 표시한 경우가 있고, 舊本을 통하여 저자를 표시한 경우가 있다. 먼저 저자를 직접 밝힌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총목』에서는 『筍譜』에 대해 ‘不著撰人名氏’라고 표시하고, 그 해제에서 “조공무의 『군재독서지』에서는 승려 惠崇이 찬술했다고 하고, 진진손의 『직재서록해제』에서는 승려 贊寧이 찬술했다고 하였다. 惠崇은 송초 아홉 승려 중의 한 사람으로 시를 잘 읊었고, 그림도 잘 그렸지만, 이 책을 지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송사예문지』에서도 贊寧이 지었다고 했으니 진진손의 설이 맞다.”<sup>38)</sup>고 하여 역대 해제목록에 나타난 『筍譜』의 저자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에 대해 『간명목록』은 『총목』의 표시와는 달리 ‘宋釋贊寧撰 或作惠崇者誤也’ 즉, ‘宋 승려 贊寧이 편찬한 것이며, 간혹 惠崇이 지었다고 하는 것은 오류’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諸橋轍次의 『大漢和辭典』에서 『筍譜』의 저자를 ‘宋釋贊寧撰’<sup>39)</sup>이라고 했으며,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2011)에서도 贊寧의 저서로서 『筍譜』를 소개해 주고<sup>40)</sup> 있는 점을 볼 때, 『간명목록』에서 표시한 대로 현재 통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사례로 『翰林記』, 『蜀鑑』 등등이 있다.

『총목』	『간명목록』
筍譜一卷 內府藏本 不著撰人名氏	筍譜一卷 宋釋贊寧撰 或作惠崇者誤也
翰林記二十卷 浙江汪啓淑家藏本 不著撰人名氏	翰林記二十卷 明黃佐撰
蜀鑑十卷 兩淮鹽政採進本 不著撰人名氏	蜀鑑十卷 宋郭允蹈撰

다음으로 舊本에서 전하는 저자를 표시한 경우가 있다. 『都城紀勝』에 대해 ‘舊本題耐得翁撰’으로 표시했는데, 중국 국가도서관에서도 ‘灌園耐得翁撰’으로 하고 있다.

『총목』	『간명목록』
都城紀勝一卷 內府藏本 不著撰人名氏	都城紀勝一卷 舊本題耐得翁撰

38) 紀昀等, 『四庫全書總目』 子部 譜錄類, 筍譜一卷 內府藏本.

“不著撰人名氏 晁公武讀書志作僧惠崇撰 陳振孫書錄解題作僧贊寧撰 案惠崇爲宋初九僧之一 工於吟詠 … 又工於畫 … 然不聞曾作是書 考宋史藝文志 亦作贊寧 則振孫說是也”

39) 諸橋轍次, 『大漢和辭典8』(東京: 大修館書店, 昭和41[1966]-昭和43[1968]).

40) 한보광, 임종욱,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서울: 이화문화사, 2011), 387.

또한 舊本에서 전하는 저자를 표시한 다음에 누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기술한 경우도 있다. 『經濟文衡』의 경우 ‘舊本題宋滕珙編 或又題明馬季機編 未之詳也’ 즉 ‘구본에서 宋 滕珙이 편찬했다고 하였다. 간혹 明 馬季機가 편찬했다고도 하는데 확실치 않다.’고 기술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에 대해 天津圖書館에서는 ‘宋朱熹撰 宋滕珙輯’, 蘭州大學圖書館에서는 ‘朱熹撰’, 國家圖書館에서는 ‘滕珙輯’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sup>41)</sup> 馬季機는 『千頃堂書目』의 馬季機編<sup>42)</sup>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고증이 필요하겠다.

『총목』	『간명목록』
經濟文衡 前集二十五卷 後集二十五卷 續集二十五卷 安徽巡撫採進本 不著編輯者名氏	經濟文衡 前集二十五卷 後集二十五卷 續集二十二卷 舊本題宋滕珙編 或又題明馬季機編 未之詳也

4) 공저자인 경우, 저자와 저자 사이를 이은 ‘而’ 또는 ‘與’자를 생략하고 표시한 경우가 있다.

『총목』	『간명목록』
分類補注李太白集三十卷 通行本 宋楊齊賢集注而元蕭士贊所刪補	分類補註李太白集三十卷 宋楊齊賢集註 元蕭士贊刪補
近思錄十四卷 直隸總督採進本 宋朱子與呂祖謙同撰	近思錄十四卷 宋朱熹呂祖謙同撰

이 밖에 공저자의 저작을 단독 저자로 수정한 경우가 있다. 그 예로 『西湖志纂』의 ‘梁詩正撰’을 들 수 있는데, 『총목』의 해제<sup>43)</sup>와 중국의 국가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도서관에서 저자를 沈德潛으로 표시한 점<sup>44)</sup>을 감안해 보면, 『간명목록』의 저자표시는 그리 잘 했다고 볼 수 없겠다.

『총목』	『간명목록』
西湖志纂十二卷 內府藏本 國朝大學士梁詩正禮部尚書銜沈德潛等同撰	西湖志纂二十卷 國朝大學士梁詩正撰

## 2.5 저작역할어

저작역할어의 경우, 『간명목록』에서는 『총목』의 방식을 따랐지만, 간혹 차이 나는 사례가 있다. 그 특징적인 점만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저작역할어의 표현을 『총목』과 약간 달리한 경우가 있다. 『論語正義』의 何晏‘註’를 ‘注’로,

41) 國學大師(<http://www.guoxuedashi.com>) 참조 [검색일 2018.01.10.]

42) 紀昀等, 『四庫全書』 子部 儒家類, 經濟文衡 提要.  
“黃虞稷千頃堂目則載是書爲馬季機編”

43) 紀昀等, 『四庫全書總目』 史部 地理類 山水之屬, 西湖志纂十二卷 內府藏本.  
“初 雍正中 浙江總督李衛修西湖志 延原任編修傅王露總其事 而德潛以諸生爲分修 凡成書四十八卷 … 至乾隆十六年恭逢 … 德潛因取舊志 復與王露重加纂錄 芟繁就簡 別爲十卷 而梁詩正亦奏請重輯西湖志 會德潛書稿先成 繕錄進御 蒙皇上優加錫賚 特製詩篇 以弁其首 並勅詩正 即以德潛此稿合成之 詩正復偕王露參考釐訂爲十二卷 於乾隆十八年十二月奏進”

44) 國學大師(<http://www.guoxuedashi.com>) 참조 [검색일 2018.01.10.]

『石山醫案』의 陳桷‘編’을 ‘撰’으로 『禮部志稿』의 ‘官修’를 ‘官撰’으로 수정한 것이다.

『총목』	『간명목록』
論語正義二十卷 內府藏本 魏何晏註 宋邢昺疏	論語正義二十卷 魏何晏等注 宋邢昺疏
石山醫案三卷 兩淮鹽政採進本 明陳桷編	石山醫案三卷 附案一卷 明陳桷撰
禮部志稿一百一十卷 浙江巡撫採進本 明泰昌元年官修	禮部志稿一百十卷 明泰昌元年官撰

나) 저자의 실질적인 저작역할에 맞게 수정한 경우가 있다. 그 예로 『周易義海撮要』를 보면, 『총목』에서는 ‘宋李衡撰’으로 ‘撰’이란 저작역할어를 붙인데 비해 『간명목록』에서는 ‘宋李衡刪定’ 즉, 저작역할어를 ‘刪定’으로 표시하였다. 『총목』의 해제에서 “房審權이 『周易義海』 100권을 편집했는데, 李衡이 그 책의 뜻이 중복되고 글이 번잡하고 자질구레하므로, 이를 산삭하고 개정해서 편찬한 것이라서 撮要라고 하였다.”<sup>45)</sup>고 기술한 내용을 보면, 『간명목록』에서 李衡의 실질적인 저작역할에 맞게 잘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徐孝穆集箋註』의 경우에도 『총목』에서는 ‘國朝吳兆宜註’라고 표시하였는데 『간명목록』에서는 ‘國朝吳兆宜箋註’라고 하여 저작역할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었다.

『총목』	『간명목록』
周易義海撮要十二卷 兩淮馬裕家藏本 宋李衡撰	周易義海撮要十二卷 宋李衡刪定
徐孝穆集箋註六卷 內府藏本 陳徐陵撰 國朝吳兆宜註	徐孝穆集箋註六卷 陳徐陵撰 國朝吳兆宜箋註

다) 『총목』의 해제를 잘 요약해서 저자와 저작역할어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해 준 경우도 있다. 그 예로 『古今同姓名錄』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총목』	『간명목록』
古今同姓名錄二卷 永樂大典本 梁孝元皇帝撰	古今同姓名錄二卷 梁孝元皇帝撰 唐陸善經續 元葉森補

『총목』에서 저자사항에 ‘梁孝元皇帝撰’으로 표시한 데 비해 『간명목록』에서는 ‘梁孝元皇帝撰, 唐陸善經續, 元葉森補’라고 하여 원본, 속본, 증보본의 저자와 저작역할어를 함께 기술하였다. 『간명목록』의 이 같은 기술은 『총목』의 해제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총목』에 수록된 『古今同姓名錄』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양서본기』 및 『수서경적지』에 보이는데 모두 1권으로 표시하였다. 육선경이 뒤이어 확대한 까닭으로 『군재독서지』와 『직제서록해제』에서는 모두 3권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책들은 모두 전하지 않는다. 이 책은 『영락대전』에 수록된 것으로 원 삼십이 증보한 것이다. (是書見於梁書本紀及隋書經籍志者 皆作一卷 唐陸善經續而廣之 故讀書志書錄解題 皆作三卷 其本皆不傳 此本爲永樂大典所載 又元人葉森所增補者也)<sup>46)</sup>

45) 紀昀等, 『四庫全書總目』經部 易類, 周易義海撮要十二卷 兩淮馬裕家藏本.

“宋李衡撰 … 房審權 … 編爲一集 … 名曰周易義海共一百卷 衡因其義意重複 文詞冗瑣 刪削釐定 以爲此書故名曰撮要”

46) 紀昀等, 『四庫全書總目』子部 類書類, 古今同姓名錄二卷 永樂大典本.

이처럼 『총목』에서는 해제에서 속본의 편찬자인 陸善經과 증보본의 편찬자인 葉森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간명목록』에서는 이 내용을 저자사항에 표시하여 책의 계통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표시해 주었다.

## 2.6 저작년

이 저작년은 저자의 소속 왕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특이 사항으로서 책의 발표시점 또는 공표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자의 소속 왕조가 저자에 대한 설명인데 비해, 이 저작년은 저자에 대한 설명이 아닌 책 자체에 대한 내용으로서 책의 발행년과 같은 성격을 띤 것이다. 이 경우 대개 역조명 대신 연호로 표시하고 있는데, 양 목록에서 차이 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저작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가 있다. 『太平御覽』의 경우, 『총목』에서는 ‘宋’을 표시한 후에 해제에서 ‘태평흥국 2년 조서를 받아서 8년에 완성한 책’이라고 기술한 데 비해, 『간명목록』에서는 ‘太平興國二年’을 저자명 앞으로 이동하여 『총목』보다 저작년을 좀 더 확실하게 명시해 주었다. 『大金德運圖說』의 경우에도 『총목』에서는 ‘金’만을 표시한 데 비해, 『간명목록』에서는 ‘貞祐二年’을 추가하여 저작년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었다. 이는 『간명목록』이 비록 더 간략하게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도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첨가하여 더욱 분명하게 표현한 사례이다. 이 같은 사례로 『冊府元龜』, 『古今列女傳』 등등이 있다.

『총목』	『간명목록』
太平御覽一千卷 侍講張翥家藏本 宋李昉等奉勅撰 以太平興國二年受詔至八年書成	太平御覽一千卷 宋太平興國二年 李昉等奉勅撰
大金德運圖說一卷 永樂大典本 金尙書省會官集議德運所存案牘之文也	大金德運圖說一卷 金貞祐二年尙書省集議之案牘也
冊府元龜一千卷 內府藏本 宋王欽若楊億等奉勅撰	冊府元龜一千卷 宋景德二年王欽若等奉勅撰
古今列女傳三卷 兩江總督採進本 明解縉等奉勅撰	古今列女傳三卷 明永樂中解縉等奉勅撰

나) 동일 서적인데 양 목록 간에 저작년이 다르게 표시된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간명목록』의 오류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같은 차이는 저록의 대상이 된 판본의 차이와 도서를 보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먼저 판본의 차이를 살펴보면, 『欽定滿州祭神祭天典禮』의 경우 乾隆12年奉勅撰本은 滿洲文字本이고, 乾隆42年奉勅撰本은 漢文本<sup>47)</sup>이어서 그 차이가 난 것이다. 『欽定大清會典』 역시 山西省圖書館 소장 乾隆29年 武英殿刻本<sup>48)</sup>과 天津圖書館 소장 乾隆26年 刻本<sup>49)</sup>이 있으며, 『欽定大清會典則例』의 판본은 찾지 못했지만, 『간명목록』에서 ‘乾隆26年 『欽定大清會典』과 함께

47) 薑小莉, “『欽定滿州祭神祭天典禮』對滿族薩滿教規範作用的考辨,” 『世界宗教文化』 2(2016), 94.

48) 王記錄, 趙靜, “乾隆『大清會典』編纂述論,” 『史學史研究』 3(2015), 102.

49) 國學大師(<http://www.guoxuedashi.com>) 참조 [검색일 2018.01.10.]

편수되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이 역시 판본에 따라 저작년의 차이가 난 것이다.

다음으로 해당 도서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작년을 다르게 표시한 경우가 있다. 『欽定天祿琳琅書目』의 경우 건륭40년과 건륭9년으로 31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건륭9년에 『天祿琳琅』의 편찬을 명하였고, 30여년 후인 건륭40년에 『欽定天祿琳琅書目』의 편찬을 명하였는데<sup>50)</sup> 『간명목록』에서는 『天祿琳琅』의 편찬시점을 대상으로 저작년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간명목록』의 저작년표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해당 도서의 편찬시점을 확실하게 잡아준 『총목』의 표시가 더 온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총목』	『간명목록』
欽定滿洲祭神祭天典禮六卷 乾隆十二年奉勅撰	欽定滿州祭神祭天典禮六卷 乾隆四十二年奉勅撰
欽定大清會典一百卷 乾隆二十九年奉勅撰	欽定大清會典一百卷 乾隆二十六年奉勅撰
欽定大清會典則例一百八十卷 乾隆二十九年奉勅撰	欽定大清會典則例一百八十卷 乾隆二十六年與會典同修
欽定天祿琳琅書目十卷 乾隆四十年奉勅撰	欽定天祿琳琅書目十卷 乾隆九年詔編

### 3. 결론

본 연구는 淸 乾隆年間に 紀昀(1724-1805) 등이 편찬한 사분법 해제목록인 『四庫全書總目提要』와 『四庫全書簡明目錄』의 목록기술요소를 비교 연구한 것이다. 양 목록의 서지적 기술 요소 간에 가장 큰 차이는 『총목』에서는 판본표시를 해주었는데 비해 『간명목록』에서는 이를 생략한 점이다. 그 외에 『簡明目錄』의 목록기술은 대체적으로 『總目』과 유사하였는데, 양 목록 간에 차이 나는 부분을 요소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표제는 『총목』에 수록된 표제를 간략하게 줄인 경우, 표제를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여 서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수정한 경우, 동일 표제를 지닌 서적 가운데 先後나 重修 여부에 따라 구분이 필요할 때 그 내용을 附記한 경우, 누구의 저작인지 구별하기 쉽도록 저자의 ‘姓’ 또는 ‘姓+氏’의 형식으로 표제 앞에 관기한 경우, 표제에 포함된 저자의 성이나 저자명을 삭제한 경우, 부록, 보유, 속집 등 원본과 별도로 편찬된 서적을 표제표시에서 삭제하거나, 그와 반대로 추가 보완한 경우, 표제에 오자가 난 경우 등이 있었다.

2. 권수는 판본의 차이 또는 별책의 합산과정에서 차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

3. 판본은 『간명목록』에서 그 표시를 생략하였다. 『총목』에서 판본을 표시한 이유가 서적의 출처 또는 내원을 알려준 것인데 『간명목록』이 『총목』에 접근하는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총목』을 축약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굳이 그 사항을 넣어서 번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 표시를 생략한 것으로 보였다.

50) 劉薈, 淸宮, 『天祿琳琅』 遺書流寓日本考, 『版本目錄學研究』 (2014), 615.

4. 저자의 소속 왕조는 『총목』의 오류를 『간명목록』에서 수정한 경우, 『총목』에서 표시한 시대를 생략한 경우 등이 있었다.

5. 저자명은 『총목』에서 저자사항에 저자표시를 하지 않은 서적에 대해 저자를 표시한 경우, 『총목』의 저자명 오류를 정정한 경우와 그 반대로 『간명목록』에서 오류를 범한 경우, 舊本을 통해서 표시한 저자에 대해 舊本을 삭제하고 명확히 저자를 표시한 경우, 원저자 또는 원주해자를 넣어 준 경우, 저자의 인물의 비중에 따라서 수정한 경우, 『총목』에서 서술적으로 기술한 사항을 간략하게 표시한 경우와 그 반대로 『간명목록』에서 서술형으로 수정 보완한 경우, ‘姓+子’의 형식으로 표시한 저자를 ‘姓+名’의 형식으로 수정한 경우, 저자표시를 생략하거나 해제에서 그 내용을 기술한 경우 등이 있었다.

이 밖에 서적의 유형별로 구분한 저자명표시의 특징적인 점은 다음과 같았다.

- 1) 御製御撰書는 『총목』에서 서술적으로 기술한 부분을 축약하여 보다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실질적인 편찬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총목』에서 어찬서 또는 어정서로 표시한 것을 명찬서로 수정한 경우, 표제에 붙은 어정을 삭제한 경우 등이 있었다.
- 2) 명찬서는 『총목』에서 명찬서로 표시한 서적에 대해 『간명목록』에서 원찬자를 먼저 표시해 준 다음에 명찬서임을 부기해 준 경우, ‘봉칙+저작역할어’의 형식으로 표시한 서적에 대해 ‘奉勅’을 삭제한 경우, ‘저자명+저작역할어’의 형식으로 표시한 서적을 ‘봉칙+저작역할어’의 형식으로 수정한 경우, 저자 앞에 관직명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경우 또는 관직명을 생략한 경우, 봉칙자의 수를 줄이고 대표저자만 표시한 경우, 봉칙자를 새로 넣어준 경우, 봉칙자를 삭제한 경우 등이 있었다.
- 3) 『총목』에서 ‘不著撰人名氏’, ‘不著編輯者名氏’ 등으로 표시한 서적에 대해 『간명목록』에서 저자를 찾아서 밝혀준 경우가 있었는데, 저자를 직접 표시한 경우, 舊本을 통해서 저자를 표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 4) 공저자는 저자와 저자 사이를 이은 ‘而’ 또는 ‘與’자를 생략한 경우, 공저자를 단독저자로 수정한 경우 등이 있었다.
6. 저작역할어는 『총목』과 그 표현을 약간 달리한 경우, 실질적인 저작역할에 맞게 수정한 경우, 『총목』의 해제를 잘 요약해서 저자와 저작역할어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해 준 경우 등이 있었다.
7. 저작년은 『총목』에 비해 구체적으로 저작년을 명시한 경우, 동일 서적인데 양 목록 간에 저작년이 다르게 표시된 경우 등이 있었다.

『간명목록』의 목록기술은 비록 『총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지만, 『총목』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 편찬 목적에 맞게 『총목』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목록기술에 오류가 나오고 기술적 측면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간명목록』은

비교적 목록기술상에 통일성을 지녔으며, 『총목』의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교감하고 보강하여, 『사고전서』와 그의 『총목』에 접근하는 가교 역할을 해 주고,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목록으로 재편하였다는 점에서 중국목록학사에서 가치가 높은 목록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康東升. 『四庫全書簡明目錄』研究. 『商業文化』8(2008). 204.
- 董小莉. “『欽定滿洲祭神祭天典禮』對滿族薩滿教規範作用的考辨.” 『世界宗教文化』2(2016). 94-99.
- 江洲安. “『四庫全書總目』與『增訂四庫簡明目錄標註』.” 『歷史教學問題』(1984.6). 60(50).
- 龔鵬程. 『四庫全書總目提要校證』例說 ([http://blog.sina.com.cn/s/blog\\_492808ed01017x7o.html](http://blog.sina.com.cn/s/blog_492808ed01017x7o.html))  
國學大師 (<http://www.guoxuedashi.com>) [검색일 2018.01.10.]
- 紀昀 等. 『欽定四庫全書總目提要』(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網上版)).
- 紀昀 等. 『四庫全書簡明目錄』(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網上版)).
- 紀昀 等著, 김만원 역. 『사고전서간명목록역주』. 서울: 역락, 2017.
- 김동석, 이용률. “조선과 청나라 문인의 교류와 특징.” 『韓國漢文學研究』61(2016. 3). 225-255.
- 남운덕, 이용률. “운행임의 청대 초기 고증학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 『국학연구』23(2013). 379-406.
-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서울: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9-.
- 段晶晶. “『四庫全書簡明目錄標註』: 中國重要的古籍版本目錄.” 『圖書館理論與實踐』4(2003). 85-86.
- 리상용. “『사고전서간명목록』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56(2013. 12). 151-183.
- 리상용.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69(2017. 3). 267-286.
- 百度. <<http://baike.baidu.com>> [검색일 2018.01.10.]
- 白福春, 劉琨. “『四庫全書總目』收錄古籍數量及卷數訂正.” 『圖書館學刊』4(2016). 114-116.
- 司馬朝軍. “『四庫全書總目』與『四庫全書簡明目錄』之比較.” 『上海高校圖書情報學刊』2(2002). 58-59.
- 楊甲. 六經圖 影印版 十卷 PDF (<http://www.guoxuedashi.com/guji/2058k/>)
- 嚴佐之. “朱子『中庸輯略』芟節石塾『中庸集解』原本條目考: 兼論芟節原本條目的經典詮釋意圖. 人文與價值.” 『朱子學國際學術研討會暨朱子誕辰880周年紀念會文集』. 2010.
- 嚴佐之. “朱子『中庸輯略』芟節石塾『中庸集解』原本條目考: 兼論芟節原本條目的經典詮釋意圖.” 『湖南大學學報』25(2011). 18-25.
- 永瑤, 紀昀 等 武英殿本『四庫全書總目提要』. 影印本.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中國72 [1983].

- 永瑢, 紀昀 等 文淵閣原鈔本『四庫全書簡明目錄』.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72 [1983]
- 吳長庚, 馮會明. “『六經圖』碑本書本之流傳與演變.” 『江西社會科學』 2(2003). 64-68.
- 王記錄, 趙靜. “乾隆『大清會典』編纂述論.” 『史學史研究』 3(2015). 92-102.
- 劉薈, 清宮. “『天祿琳琅』遺書流寓日本考.” 『版本目錄學研究』 (2014). 615-628.
- 李步嘉. 『增訂四庫簡明目錄標注』 『販書偶記』 補正. 『古籍整理研究學刊』 1 (1991). 27-29.
- 이영호. “『晏子春秋』文型 研究: 判斷文과 被動文을 중심으로.” 『韓國孔子學會』 27(2014. 11). 245-279.
- 林申清. “『四庫全書總目』與『四庫全書簡明目錄』成書先後.” 『黑龍江圖書館』 (1990. 6). 59-60.
- 임종욱. 『중국역대인명사전』. 서울: 이화문화사, 2010.
-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41[1966]-昭和43[1968].
- 趙穎. “鄭小同與『鄭志』研究.” 碩士學位論文. 山東師範大學. 2014.
- 周錄祥. 『四庫全書簡明目錄·集部』訂誤. 碩士學位論文. 南京師範大學. 2005.
- 崔富章. “『四庫全書總目』武英殿本刊竣年月考察.” 『浙江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6. 1). 104-109.
- 한보광, 임종욱.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서울: 이화문화사, 2011.
- 哈佛大學圖書館. 『哈佛大學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文獻』 (<http://www.xy980.net/xq10/KW2851.htm>)
- 胡露. “『四庫全書簡明目錄』經部 易書詩禮四類訂誤.” 『圖書館理論與實踐』 1(2014). 54-57.
- 胡露, 周錄祥. “『四庫全書簡明目錄 集部·別集類』訂誤.” 『圖書館雜誌』 10(2005). 70-72.
- 胡露, 周錄祥. “『四庫全書簡明目錄』淺論.” 『重慶社會科學』 5(2005). 57-62.
- 黃開國主編. 『經學辭典』.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3.

